

Korean A: literature – Higher level – Paper 1
Coréen A : littérature – Niveau supérieur – Épreuve 1
Coreano A: literatura – Nivel superior – Prueba 1

Wednesday 4 May 2016 (afternoon)
Mercredi 4 mai 2016 (après-midi)
Miércoles 4 de mayo de 2016 (tarde)

2 hours / 2 heures / 2 horas

Instructions to candidates

-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.
- Write a literary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.
-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**[20 marks]**.

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

- N'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'y être autorisé(e).
- Rédigez un commentaire littéraire sur un seul des passages.
-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'examen est de **[20 points]**.

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

-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.
- Escriba un comentario literario sobre un solo pasaje.
-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**[20 puntos]**.

다음 중 하나를 골라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:

1.

“뭘……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뱀쇼, 아 삼산 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뱀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……”

한다. 나는

“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.”

5 하였다. 그는 좋아서 병긱거리며 머리를 긁었다.

“그래, 삼산 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?”

물으니 그는

“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쓰까이 (사환) 노릇을 합쇼. 밀천만 있으면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텐뱀쇼.”

10 한다.

“무슨 장사?”

“아, 방학될 때까지 차미(창외) 장사도 하굽쇼, 가을부터 군밤 장사, 왜떡 장사, 습자지, 도화지 장사 막 합쇼. 삼산 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.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뱀쇼.”

15 한다.

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.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.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.

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. 그리고 그 이튿날

“선생님 잡수시라굽쇼.”

20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.

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.

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,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.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. 남편만 남 같으면 따루

25

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.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.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. 왜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짜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. 그는 병긱거리며

30

“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.”

하는 때였다. 웬 사람 하나가 날째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멍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.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.

35

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감하였다.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 값을 물어 주었다. 포도 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.

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먹었다.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.

어제다.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

40

달빛이 gaps을 갠 듯하였다.

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
“사……계……와 나……미다까 다메이…끼……까…….”
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.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. 나는
“수건인가?”

45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 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, 획 길 아래로
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.

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, 노래는 그 이상은 외지도 못하는 듯 첫 줄
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꺾꺾 빨면서 지나갔다.
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.

이태준 “달밤” <중앙> (1933)

2.

목숨

목숨은 때문었다.
절반은 흠이 된 빛깔
황폐한 얼굴엔 표정이 없다.

나는 무한히 살고 싶더라.
5 너랑 살아 보고 싶더라.
살아서 죽음보다 그리운 것이 되고 싶더라.

억만 광년(億萬光年)의 현암(玄暗)을 거쳐
나의 목숨 안에 와 닿는
한 개의 별빛.

10 우리는 아직도 포연(砲煙)의 추억 속에서
없어진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.
따뜻이 체온에 젖어 든 이름들.

살은 자는 죽은 자를 증언하라.
죽은 자는 살은 자를 고발하라.
15 목숨의 조건은 고독하다.

바라보면 멀리도 왔다마는
나의 뒤 저편으로
어쩌면 신명나게 바람은 불고 있다.

어느 하많은 시공(時空)이 지나
20 모양 없이 지워질 숨자리에
나의 백조(白鳥)는 살아서 돌아오라.

신동집 <서정의 유형> (1954)